

있다. 그리하여 일선 보건간호사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계속되므로, 또한 일반 행정직의 지도 감독하에 흥미를 잃고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율이 높다.

마. 교육배경이나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직급이 너무 낮은 점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단위 보건요원의 정원 41명중 정규직 간호사 정원이 2명, 39명의 정원(T.O)는 임시직이며 보조원에게 개방되지 않은 정원은 19명으로 대부분 모자보건요원의 정원이다.

2명의 정규직 이외의 모든 임시직은 내무과의 정규직, 잡급직, 임시직의 어느 항목에도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실제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군보건소의 경우 5급이나 5울의 최하위직에서 일하고 있으며 간호직으로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10년을 5급에서 머무르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을 갖고 있어 교육배경이나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그 직급이 낮은 위치에 있고 진급할 기회가 전혀 없는 실정에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지역주민의 인구 사회 및 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모자보건 간호요구 조사

대한간호, Vol. 18, No. 1, pp. 42~65, 1979.

오 덕 자

본 연구는 서대문구 홍은2동 지역주민 236명을 대상으로 모성 간호영역, 영유아간호 영역, 가족계획간호 영역에 따른 간호요구와 인구, 사회 및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간호요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전관리 간호요구에서는 산전증상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이 66.7%로서 전체가정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임신중 금기식품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은 44%나 되었다.

2. 분만관리 간호요구에서는 분만장소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은 47%로 가장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거나 월 평균 수입이 적은 가정일수록 간호요구가 많았다. 남편의 직업에서는 노동자, 무직인 직업에서 간호요구가 많았다.

3. 산후관리 간호요구에서는 산후 휴양기간에 따른 간호요구와 올바른 산육기간 지식에 따른 간호요구와 올바른 산육기간 지식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은 각각 55.6%와 77.8%로서 전체 가정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또는 월 평균

수입이 적을수록 산후 휴양기간에 따른 간호요구가 많다. 남편의 직업에서는 기능적인 직업인 경우에 산후휴양기간에 따른 간호요구가 높았다. 올바른 산욕기간지식에 따른 간호요구는 교육수준별로 유의의 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4. 종합모성보건 간호요구 지수는 평균 및 표준편차가 4.10과 1.74이다. 비교적 간호요구가 많으며 대상자간에 간호요구의 차가 크게 분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영유아간호요구에서는 올바른 보충식이의 시작시기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이 73%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이 건강지도 교육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이 56%, 예방접종 지식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은 44% 순서이다.

6. 종합 영유아간호요구 지수는 평균 및 표준편차는 2.81과 1.32로 비교적 간호요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월평균 수입이 적을 수록 종합 영유아 간호요구가 많으며 남편의 직업에서는 기능적인 직업에서 간호요구가 많았다.

7. 가족계획 간호요구에서는 생존아수로 본가족계획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이 55%, 인공유산유무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이 53%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종합 가족계획 간호요구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28과 1.39로 비교적 간호요구가 많다. 연령이 많을 수록 가족계획 간호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뿐 아니라 높은 사람에게도 간호요구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도시지역 가정의 모자보건 관리가 아직도 소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가정의 모자보건 간호요구 충족은 지역사회 간호사업 접근법으로 보건사회부는 받아들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한국부인의 피임방법 속성별 선호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36권 3호, pp. 201~207, 1979.

이 지 현

가족계획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클리닉방문부인의 일반적속성과 이들이 피임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1977년 5월 1일부터 1978년 10월 31일까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새 클리닉을 찾은 부인들 중 IUD, pill 및 injection을 택한 부인 621명을 대상으로 면접한 결과 주된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1. 621명의 응답자중 50%는 IUD를 39.5%는 pill을 택하였으며 10%만이 injection을 택하였다.